

바꽃(烏頭)의 포제(炮製)에 관한 연구

성만준, 이계석, 조선희, 이고훈, 강옥화, 권동렬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Abstract

Study on The Drug Processing of of the Roots of *Aconitum carmichaeli*

Seong Man-Jun, Lee kye-suk, Cho sun hee, Lee go hoon, Ok-Hwa Kang,

Kwon Dong-Yeul

Department of Oriental Pharmacy, medicinal herbs,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Iksan, Jeonbuk 570-749, Korea

From the tuberous root of *Aconitum carmichaeli* Debx.(Ranunculaceae), the main root is called as common monkhood mother root and the lateral root is called as the prepared aconite root. From the prepared aconite root. Looking at the processing method of the prepared aconite root, it is divided into Yeombuja (prepared aconite root processed in salt) and heuksoonpyeon (baekbupyeon) following the processing method after removing the soil and this is a way of processing the prepared aconite root without damaging it.

The recently produced raw prepared aconite root is easily damaged, thus it shall be preserved in salt to have the crystal shape on the surface of the prepared aconite root and store and transport in firmly solidified yeombuja condition. Therefore, yeombuja shall remove the salt before use and requires processing for use, but heuksoonpyeon or baekbupyeon may use immediately.

교신저자: 권동렬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본초학교실

Tel : 063-850-6802. E-mail : sssimi@wonkwang.ac.kr

접수 : 2005/ 11/ 5 수정 : 2005/ 11/ 12 채택 : 2005/ 11/ 21

For the succession of the unique processing techniques of our ancestors, there has to be studies on the techniques. Prepared aconite root is generally used as holy medicines to cure the yang depletion syndrome, kidney-yang deficiency syndrome, and obstruction of qi in the chest syndrome. However, they are the substances with toxicity. It is contemplated that the contents of processing are broadly understood through the document on the processing method, and based on such foundation, the systematic set and proof on the documents are made along with the addition of the contemporary scientific theory and technology to develop the traditional processing technology to maximize the treatment effect and safety of prepared aconite root.

In this study, the historic data and records on the processing method of lateral root of aconitum carmichaeli Debx will be rearranged to contribute to the standardization of medicinal herbs, maximization of efficacy and minimization of the side effects.

Key word : 부자(附子) Prepared Aconite Root, 천오(川烏) Common Monkhood Mother Root, 바꽃(烏頭) Aconitum carmichaeli Debx., 염부자 Yeombuja, 흑순편 heuksoonpyeon, 백부편 baekbupyeon, 담부자 Dambuja, 포제(炮制) Drug Processing.

I. 緒 論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목인 바꽃(烏頭)의塊根(母根)을 川烏頭(烏頭)라하고 뿌리 곁에 토란과 같이 붙어있는 것을 附子라 한다. 附子에는 오두, 오뢰(烏喙), 천웅(天雄), 측자(側子)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附子의 종류로, 그 생김새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모양이 까마귀 머리 같이 생긴 것을 오두(烏頭), 附子의 머리가 두 갈래로 된 것을 오뢰(烏喙), 가늘고 길이가 3-4치 되는 것을 천웅(天雄)이라 한다. 선조의 독특한 포제기술의 계승을 위해 우리들은 天雄의 포제기술에 관한 연구를 중시하여야 한다. 또한 임상에서 천웅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자의

포제법 연구도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附子는 약 중의 聖藥이다. 附子는 急證, 危證, 重證을 치료하지만, 동시에 毒性을 가진 약물이다. 부자의 포제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광범위한 포제를 이해하고, 한국 및 중국의 약전에 수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포제법에 대한 연구하여, 고대 포제방법의 기초위에 문헌에 대한 계통적인 정리와 고증을 바탕으로 현대 과학 이론과 기술방법을 더하여 전통 포제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부자의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제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꽃(烏頭)의 자근의 포제법에 관한 역대 문헌을 정리하여 향후 포제법의 규격화 및 약효를 최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II. 本論

第一節. 바꽃에 관한 연구

一. 바꽃에 관한 문헌 자료

일찍이 天雄, 부자 및 오두는 <神農本草經>

草經>에¹ 성미, 기능이 기재되어 있지만 포제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상품 120종과 중품 120종 하품 125종에서 241번은 부자, 242번은 오두, 243번에 천웅으로 나와 있다.

	부자	오두	천웅
異名	간(莨)	해독(奚毒), 오뢰(烏喙), 즉자(卽子)	백막(白幕)
氣味	辛溫, 有大毒	辛溫, 有大毒	辛溫, 有大毒
效能	治風寒, 欬逆, 邪氣, 溫中, 金瘡, 破癥堅, 積聚, 血瘕, 寒濕痿躄, 拘攣, 膝痛, 不能行步, 生山谷	治中風, 惡風 出汗, 除寒濕痺, 欬逆上氣 破積聚, 寒熱, 其汁濕, 煎之名射罔, 殺禽獸, 生山谷	治大風, 寒濕痺, 歷節痛, 拘攣緩急, 破積聚邪氣, 金瘡, 強健骨, 輕身, 健行

二. 부자의 역대 포제 개황²

漢代에 <金匱玉函經>에 炮去皮와 <金貴要略方論>에 炮, 去皮, 破八皮와 <中藏經>에 去皮臍法이 기재되어 있다.

晋代에 <肘後備急方>에 炮去皮臍, 燒法의 기재가 있고 <劉涓子鬼遺方>에 炮, 炮裂이 기재되어 있다.

南北朝劉宋時代에 <雷公炮炙論>에 “夫修事十兩, 于文武火中炮, 令皴坼者去之, 用刀刮上孕子, 併井去底尖, 微細劈破, 于屋下午, 也上掘一坑, 可深一尺, 安于中一宿, 至明取出 培乾用. 夫欲炮者, 灰火勿用雜木火, 只用柳木最妙, 若陰製使, 卽生去尖皮底了, 薄切, 用東流水并黑豆浸五日夜, 然後漉出, 于日中曬令干用. 凡使, 須陰制, 去皮尖了, 每十兩, 用生烏頭五兩, 東流水六升”로 東流水와 黑豆를 이용한 浸法의 기재가 있다.

唐代에 <備急千金要方>에 “搗灰炮, 蜜炙黃, 蜜塗, 炙令黃”이, <千金翼方>에 蜜塗火炙令乾, 復塗蜜炙법이, <銀海精微>에

“青鹽二錢, 以泔同爽水浸去皮根”로 青鹽, 泔水同浸법이, <仙授理傷續斷秘方>에 煨去皮法이 기재되어 있다.

宋代에 <太平聖惠方>에 “炭火內燒令黑色, 勿令藥過取出, 用盆子蓋之候冷細研”가, <博濟方>에 “去皮臍切四片, 用生姜半斤, 以水一碗同煮汁盡爲度, 附子焙乾爲末”로 生薑, 水同煮가, <蘇沈良方>에 紙裹假법이,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收附子去須根, 於醋淹浸七日, 每日攪一遍日足撈出, 曬至透乾爲度”로 醋浸법이, <聖濟總錄>에 醋炙. 黑豆青鹽製, 漿水製, 黃連製, 醋炙와 生姜, 棗同煮법과 同黃連炒. 鹽湯浸乾炒법이 있고, <三因極一病證方論>에 鹽製가, <校注婦人良方>에 濕面裹煨, 童便浸後設火煨법이, <類編朱氏集驗醫方>에 同赤小豆煮법이, <女科百問>에 同薑炒令赤법이, <扁鵲心書>뒤 에 童便浸, 再加姜汁妙法이 있다. <瘡瘍經驗方>에 “以童便煮而浸, 加入鹽, 加甘草”라 기재되

어 있다.

元代에 《丹溪心法》원에 “炮，又以鹽水浸，再炮，如此七次，去皮臍”와 “鹽炒”이 기재되어 있다.

明代에 《普濟方》에 “炮去皮，以地黃汁煮焙乾”，“防風，鹽，黑豆合炒，附子裂去者藥用附子，去臍皮” 및 “米泔水，薑，蛤粉炒裂，去皮臍”로 生薑汁，蛤粉同煮법과 地黃製가 기재되어 있고, 《奇效良方》에 石灰煨，生姜計煮，猪脂煎，青鹽炒법이, 《本草蒙筌》에 薑汁，鹽水，甘草，黃連，童便煮법이 있고, 《本草綱目》에 “摘得附子，以生熟湯浸半日，勿令氣出以白灰藏之，數易使乾. 又法以粥及糟曲等淹之. 一保昇曰”，“俗方每用附子須甘草，人參，生薑相配者，正裂其毒故也. 一宏景曰”라 하고, 《增補萬病回春》에 童便製가, 《本草原始》에 燒灰存性이, 《證治准繩》에 炮裂,米醋中浸,

再炮三五次법이, 《壽世保元》에 麩炒.用防風，甘草同炒법이, 《景岳全書》에 “甘草汁浸數日，捻之軟透之鍋內炒之將乾，口嚼尚有辣味是其度也”로 甘草湯浸炒法이 기재되어 있다.

清代에 《醫宗說約》에 “用甘草，防風同煮三，四滾，去皮臍甘防，再用童便煮一日，曬乾,方無毒也”로 甘草防風童便同製法이, 《本草必用》에 童使濃甘草湯同煮법이, 《本草從新》에 甘草湯酒浸법이, 《串雅外編》에 “用蕎麥麵一撮包煨良久去麵”와 “與甘草，甘遂，燒酒共浸煮법”이, 《得配本草》에 “附子切薄片用夏布包定甘草，甘遂捶碎，以燒酒共浸半日，文武交煮，酒乾爲度，取起附子，甘草，甘遂不用”로 川連，甘草，黑豆煎濃汁拌蒸法법이 기재되어 있고, 《本草綱目拾遺》에 童便，黃泥炮가 기재되어 있다.

年代	포제법	文獻出處
漢	炮，去皮，破八皮	金貴要略方論
	火炮法 炮去皮	金匱玉函經
晉	炮，炮去皮臍，燒	肘後備急方
南北朝	炮，炮裂	劉涓子鬼遺方
	黑豆浸	雷公炮炙論
唐	搪灰炮，蜜炙黃，蜜塗，炙令黃，醋浸法	備急千金要方
	蜜塗火炙令乾，復塗蜜炙法	千金翼方
	青鹽，泔水同浸	銀海精微
	煨去皮法	仙授理傷續斷秘方
宋	炭火內燒	太平聖惠方
	生薑,水同煮	博濟方
	紙裹煨	蘇沈良方
	醋淹浸，火烤，生薑汁淬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生姜，棗同煮，黃連剝碎同銚子肉炒	聖濟總錄
	黑豆煮，鹽製	三因極病證方論
	童便浸，朱砂，濕麵裹煨	校注婦人良方
	同赤小豆煮法	類編朱氏集驗醫方
	同薑炒令赤法	女科百問
童便浸，薑汁妙法	扁鵲心書	

	以童便煮而浸,加入鹽,加甘草	瘡瘍經驗方
元	炮, 鹽水浸, 鹽炒	丹溪心法
明	地黄汁煮, 防風, 鹽, 黑豆合炒, 米泔水, 薑, 蛤粉炒	晉濟方
	石灰煨, 生姜計煮, 豬脂煎, 青鹽炒法	奇效良方
	薑汁, 鹽水, 甘草, 黃連, 童便煮法	本草蒙筌
	生熟湯浸	本草綱目
	童便製	增補萬病回春
	燒灰存性	本草原始
	炮裂, 米醋中浸, 再炮三五次法	證治准繩
	麩炒. 用防風, 甘草同炒법	壽世保元
清	甘草汁浸	景岳全書
	甘草, 防風同煮, 童便煮	醫宗說約
	童使濃甘草湯同煮법	本草必用
	甘草湯酒浸법	本草從新
	甘與草, 甘遂, 燒酒共浸, 蕎麥麵一撮包煨	串雅外編
	川連, 甘草, 黑豆煎濃汁拌蒸法법	得配本草
現代	童便, 黃泥炮	本草綱目拾遺
	甘草, 黑豆製와 沙炮	中國藥典-1995年版
	豆腐製	上海市中藥飲片炮製規範
	甘草製	中藥飲片切製規範
	甘草, 黑豆, 白礬製	內蒙古
	薑製. 黑豆製, 生姜, 甘草製, 生姜, 甘草, 白礬製, 甘草, 銀花, 黑豆製, 麩製	中藥炮製經驗集成

三. 부자포제의 전통이론과 포제작용
 생부자는 독이 있지만 포제가공하면 독성이 감소되고 약효가 증강된다. 炮附子は 溫腎暖脾작용이 있고 心腹冷痛, 虛寒吐瀉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虛寒泄瀉를 치료하는 附子理中丸《太平惠民和劑局方》, 冷裏腹痛을 치료하는 溫脾湯《備急千金要方》이 있다. 淡附子는 回陽求逆, 散寒止痛作用이 뛰어나서 亡陽虛脫, 肢冷脈弱, 陰寒水腫, 陽虛外感, 寒濕痺痛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厥逆亡陽을 치료하는 四逆湯《傷寒論》이 있다. 한습비통을 치료하는 甘草附子湯《傷寒論》, 陽虛水腫을 치료하는 八味腎氣丸《金匱要略》이 있다. 간단히 炮製作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傷寒總病論》에 “丸散炮, 惟湯生用”가 기재되어 있

고,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醋浸, 削如小指, 內耳中, 去龔”가, 《瘡瘍經驗全書》에 “……加甘草以解其毒”가, 《本草發揮》에 “如治風治寒有必須用附子, 烏頭者, 當以童便而浸之以殺其毒, 且可以助行下之力, 入鹽尤捷也”가, 《醫宗說約》에 “厥冷回陽生用, 引諸藥行經面 火煨”가, 《本草述鉤元》에 “生用發散, 熟用則峻補”가, 《本草綱目》에 “凡用附子, 烏頭, 天雄, 皆熱灰微炮令擲, 勿過焦, 惟薑附湯生用之, 俗方每用附子須甘草, 人蔘, 生薑相配者, 正制其毒故也”가, 《本草必用》에 “童便濃甘草湯同煮, 汁盡爲度, 則毒去矣”가 기재되어 있다.

四. 포제법의 내용³⁾

부자는 처음 채취하여 흙을 제거한 뒤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염부자, 흑순편(백부편)으로 나누는데 이는 부자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염부자는 말 그대로 소금에 절여놓는 방법이며, 흑순편은 담파액과 함께 끓인 다음 간수액을 씻어내고, 다시 한 번 쪄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조색제가 들어가 흑색을 띄게 되어 흑순편이라 부르며, 백부편은 조색제가 없이 흑순편과 같은 작업 과정을 거치고, 껍질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염부자를 다시 한번 포제한 것이 담부자와 포부자인데 포부자는 염부자의 염분을 제거한 다음 시루에 넣어 한번 쪄서 익히고, 센 불에 볶아 마치 포건강과 같이 부풀리게 하는 포제법이며, 담부편은 염부자의 염분을 제거한 다음, 감초와 흑두 등의 약재와 함께 넣고 수분이 줄어들 때까지 여러 번 쪄내는 방법입니다. 밭에서 막 캐낸 생부자는 아주 잘 상하므로, 보통 염처리를 해서 부자의 표면에 결정염립이 생기며 딱딱하게 굳어진 염부자 상태로 보관이송된다. 따라서 염부자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염분을 제거하고, 감초, 흑두 등으로 법제를 해서(경포부자, 담부편 등) 사용해야 하나 흑순편이나 백부편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

1. 염부자 (鹽附子)

크기가 고른 이부자를 골라 물로 씻고 식용 간수 중에 하룻밤을 담가 둔다. 다음 날 여기에 소금을 더 넣어 담갔다가 이를 꺼내어 햇볕에 말린 다음 다시 담가둔다. 이 조작을 반복하고 동시에 햇볕에 말리는 시간을 점차 연장시켜 약의 표면에 소금이 다량 석출되고 질이 단단하게 변하면 중단한다. 이것을 염부자라 한다. 대만에서⁴

1kg에 16개 이내를 1등급, 1kg에 24개 이내를 2 등급, 1kg에 80개 이내를 3 등급으로 하고 있다.

2. 淡附片

(1) 甘草, 黑豆製 : 염부자를 취하여 물에 담근다. 매일 2-3 차례 물을 갈아주어 염분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감초 및 검정콩과 더불어 속이 익을 때까지 삶고 쪄개어 맛을 보았을 때 혀를 마비시키지 않을 때에 이르러 꺼내어 거피(去皮)를 하고 박편(薄片)을 만들거나 2-3 절하여 햇볕에 말린다. 염부자 100kg에甘草 5kg와 黑豆 10kg을 넣는다《中華人民共和國藥典 1995년》

(2) 豆腐製 : 염부자를 취해 2-3일 동안 물에 담구어 둔다(여름에는 방부하고 겨울에는 방동해야 한다). 매일 1-2차례 물을 갈아주고 건져 내어 반으로 자른 다음 다시 1-2일 물에 담구는데 매일 2-3차례 물을 갈아주어 짠맛이 없어지면 건져 낸다. 입으로 씹어 보았을 때 마비감이 없어질 때까지 두부와 같이 부자를 끓이고 꺼내어 음지(쪄개어 지지 않게 한다)에 넣어 놓고 말린다. 두부를 제거하고, 반쯤 정도로 건조한 후 극박편으로 자르고 건조하고 체로 회색 부서리기를 걸러 낸 뒤 사용한다. 염부자 100kg에 두부 10kg을 넣는다《上海市中藥飲片炮製規範》.

(3) 甘草, 黑豆, 麥麩製 : 염부자를 취하여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리하고 항아리에 담고 물을 가하는데 봄가을에는 7-10일간 담구며 매일 2 차례 물을 갈아주고,

여름에는 적당히 단축하여 물이 마르지 않게 하고, 겨울에는 적당히 연장하여 어는 것을 방지하고, 염분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부자를 절개하여 약간의 마비되고 매운 상태에서 꺼집어 낸다. 또한 감초와 흑두와 물을 솥에 넣고, 흑두가 물렁 물렁하게 될 때까지 끓이고 찌꺼기는 버리고 여기에 상기의 부자를 가하고 죽이 부자속까지 다 들어가게 끓이고 꺼집어 내어 그늘에 식히고 껍질을 벗겨 버리고 이등분하고 다시 맥부로 교반하여 부자의 수분을 삼출하게 한뒤, 약 4-5일 뒤 부가 부자에서 쉽게 떨어질 때 꺼집어 내어 맥부를 제거하고 부자를 약 3mm두께로 잘라 햇볕에 말린다. 부자 100kg에 흑두 10kg과 감초 3kg이 들어간다.《黑龍江省中藥材炮製規範》

(4) 白礬製 : 염부자를 물에 담그고 매일 2-3 차례 물을 갈아주어 염분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솥에 백반과 물을 가해 쪄개어 맛을 처음 보았을 때 혀를 마비시키지 않고 오래 씹었을 때 마비감이 있을 때까지 삶고, 꺼내어 이등분으로 가르고 다시 솥에 넣고 물을 가하고 2시간 두고 속이 익을 때까지 삶고 꺼내어 음지에서 말리는 조작을 반복하고 절편하여 햇볕에 말린다. 염부자 100kg에 백반 20kg을 넣는다.《遼寧省中藥炮製規範》

(5) 黑豆製 : 염부자를 취하여 물에 하루정도 담그고, 다시 미감수(쌀뜨물)로 2일동안 담그고 대나무 칼로 외피를 제거하고 9-12mm 두께로 자르고 다시 물에 담구어 물이 맑아질 때까지 두고 다음날 여

과하고 흑두를 가하여 약간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볶고 물을 가하여 약이 있는 면에 스며들게 하고 물이 없을 때까지 끓여 부자가 흑색으로 될 때에 꺼집어 내고 2시간 쪄 다음 부자편에 물방울이 있을 때 불의 세기를 낮추고 약간 불의 증기가 속까지 스며들게 하고 식힌다. 염부자 100kg에 흑두 30kg을 넣는다.《中國炮製經驗集成》

(6) 薑製 : 물에 담구어 담담해진 염부자를 취해 음지에서 반쯤 건조하고, 가로로 후편으로자르고 햇볕에 건조한 뒤, 생강즙을 넣고 골고루 교반하고 축축한 생강즙을 부자가 흡수하여 건조할 때까지 가하고 솥에 넣고 찌는데 김이 난 뒤 6-8시간 후에 꺼내어 햇볕에 말린다. 염부자 100kg에 생강 10kg으로 10-15kg의 생강즙을 내어 사용한다.《實用中藥炮製》

3. 炮附片

(1) 沙炮 : 모래를 솥에 넣고 강한 불로 가열한 후 부편을 넣고 계속 저어주어 부자의 표면이 올라오면서 약하게 변색이 될 때 꺼내고 모래를 체로 걸러 식힌다.《中華人民共和國藥典 1995년》

(2) 火炮 : 부자를 깨끗이 씻고 하루밤 동안 물에 담군 다음 피부와臍을 제거하고 절편으로 하여 물에 담구어 맛을 보았을 때 혀를 마비시키지 않을 때에 이르러 꺼내어 생강탕에 1-3일간 담그고 꺼내어 찌고 다시 7할 정도 건조하고 말려 솥에 넣고 센불로 급하게 볶아 연기가 나고 약간의 균열이 날 때 꺼내어 식힌다. 혹은 숯이나 연탄불위 철사망에서

반복적으로 가열하여 약간의 균열이 날 때 꺼내어 식힌다《中華人民共和國藥典 1963》

- (3) 烤製 : 미리 260도로 가열 된 오븐기에, 가지런히 부자를 정리한 판을 넣고 5분간 굽고 가열을 정지하고 온도가 200도까지 내려 왔을 때 꺼낸다.《中藥材炮製與烤製法》.

4. 附片

- (1) 흑순편 (黑順片) : 크기가 고른 이부자를 취하여 물로 잘 씻고 식용 간수 중에 약 5일간 담가 두었다가(이부자 100kg당 간수 40리터, 청수 30리터) 침액과 함께 속까지 익을 때까지 삶는다. 이를 꺼내고 소금끼가 없어질 때까지 24시간 정도 여러 번 물로 우려낸 후 외피를 제거하지 않고 두께가 약 5 mm가 되도록 세로로 자른다. 이를 다시 물에 담가 황당(각색 설탕)과 채유(유채꽃 기름)에 담가 진한 녹색이 되면 꺼낸 다음 바깥면이 윤기가 날 때까지 쪄낸다. 이를 꺼내고 반정도 마를 때까지 hong건 (烘乾)한 다음 다시 햇볕에 말리거나 hong건한다. 이것을 흑순편이라 한다.
- (2) 백부편 (白附片) : 크기가 고른 이부자를 취하여 물로 잘 씻고 식용 간수 중에 며칠간 담가 두었다가 침액과 함께 속까지 익을 때까지 삶는다. 이를 꺼내고 길 접질을 벗긴 다음 두께가 약 3 mm가 되도록 세로로 자른다. 물로 우려낸 다음 이를 꺼내고 속까지 익도록 쪄 다음 햇볕에 말린다. 이것을 백부편이라 한다.
- (3) 蒸製 : 흑부편, 백부편을 취해 잡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물을 분무하여 윤하게 하거나 혹은 찻통에서 쪄다음 극박편으로 잘라 햇볕에 말린다《河南省中藥材炮製規範》

- (4) 煮製 : 산지에서 가공한 흑순편을 솥에 넣고 물을 가하여 1시간 끓이거나 혹은 물에 1-2시간 담군 뒤 꺼내어 햇볕에 말린 후 내외습도가 같게 하여 절편한다《北京市中藥飲片切製規範》

- (5) 甘草製 : 흑부편을 취해 잡질을 제거하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눈다. 솥에 물을 붓고 깨끗한 감초를 넣고 가열하여 끓이고 끓인 액을 여과하고 다시 물을 가하여 속까지 스며들게 끓이고 잔사를 제거하고, 두 번의 감초 끓인 용액을 합하여 솥에 넣고 끓을 때까지 가열한다. 다시 흑부편을 솥에 넣고 감초탕과 같이 끓이고 수시로 저어가면서 약 2-3시간 속까지 스며들도록 가열하고 절개하여 입에 약간의 마비감이 거의 없을 때 꺼내어 6-7할정도 건조하고 내외의 연합과 딱딱함이 적당할 때까지 윤하게 한다. 1mm두께로 자르고 펼쳐 놓고 hong건하거나 췌건한다. 부스러기와 분말은 체로 걸러내고 잡질은 가려낸다. 흑부자 100kg에 감초 6kg을 사용한다《中藥飲片切製規範》

5. 製附子

- (1) 蒸製 : 이미 물에 두어 깨끗이 건조한 부자를 취해 약 4-5시간 쪄 다음 꺼내어 대나무 자리위에 펼쳐 열기를 가해 한 후, hong고하는데 소리가 날 때 꺼내어 식히고 수분을 삼출하여 다시 hong고한다.

이것을 반복하여 전부가 건조해질 때까지 흥고하고 회색의 부서러기는 채로 그른다.《湖南省中藥材炮製規範》

- (2) 감초, 흑두, 백반제 : 깨끗한 부자를 취하여 큰 것과 작은 것을 분리하고 각각 물에 담구어 매일 1번씩 물을 갈아주는데 여름에는 2번씩 갈아주고 물을 갈아줄 때 흔들며 주며 입에 약간의 마비감이 거의 없을 때 꺼내어 6할 정도 건조한다. 다시 감초, 흑두와 백반으로 끓인 물로 부자속의 백색이 없어질 때까지 끓인 다음 꺼내어 식히고 두께가 1.5mm가 되게 자르고 햇볕에 말린다. 부자 100kg에 감초 8kg, 흑두 10kg와 백반 2kg이 들어간다.《內蒙古中藥材炮製規範》

(3) 薑製

① 물에 담구어 둔 부자와 생강을 충분히 배치하여 시루에 넣고 16-18시간 찌거나, 혹은 마비감이 없을 때까지 찌 다음 건조하고 절편한다. 부자 100kg에 생강 10kg가 들어간다.《中國炮製經驗集成》

② 생강을 깨끗이 씻어 부수어 2배의 물을 가하여 즙을 만들어 여과한다. 생강즙과 부자를 교반하고 2시간 침출하여 생강즙이 부자편에 침투하도록 하고 연이어 2시간 찌고 김이 난 뒤에 부자편이 담황색이 되게 한다. 다시 센 불로 부자표면에 수분이 없을 때까지 건조한다. 부자 100kg에 생강 10kg가 들어간다.《中國炮製經驗集成》

- (4) 黑豆製 : 흑두가 여러 번 끓게 하여 흑두가 부풀어 오를 때 부자를 가하고 끓여 속까지 스며들게 하고 생산갑편으로

거피하고 두 개의 편으로 절개하고 항아리에서 건조하고 꺼내면 흑순편이 된다. 부자 100kg에 흑두 2.5kg가 들어간다.《中國炮製經驗集成》

- (5) 生薑, 甘草製 : 부자를 우선 소변에 하루 담구고 소변을 버리고 깨끗이 씻은 다음 물을 가하여 7일간(매일 3번씩 물을 갈아 준다) 담구고 꺼내어 생강과 감초를 가하고 센 불로 작은 대나무 막대로 찢어서 소리가 없을 때까지 찢 다음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하루를 둔 다음 1mm의 두께로 절개하여 말린다. 부자 100kg에 생강 10kg와 감초 5kg가 들어간다.《中國炮製經驗集成》

- (6) 生薑, 甘草, 明礬製 : 물에 담구어 처리한 부자와 생강, 감초를 같이 넣고 끓이는데 다 끓을 때쯤 소량의 명반을 넣고 꺼내어 햇볕에 7할 정도 건조하고 물로 축여 절편하고 햇볕에 말린다. 부자 100kg, 생강 5kg와 소량의 감초, 명반이 들어간다.《中國炮製經驗集成》

- (7) 감초, 조각제 : 부자를 물에 담군 것을 취하여 솥에 두고 끓이고 물을 바꾸어 다시 끓이고 햇볕에 반 정도 건조하고 2-3일일 축여 1.5mm의 두께로 절편하고 햇볕에 말린 후 대량의 물과 감초와 조각자를 같이 가해 심에 백색이 없을 때까지 끓이고, 감초와 조각자를 골라낸다. 다시 부자를 끓는 물이 있는 솥에서 2시간 끓이고 7할 정도 건조하고 2일 동안 밀폐(하루에 1-2번 씩 뒤집어 준다)하고 다시 김이 날 때까지 끓여 식히고 다시 하루를 밀폐하고 다음날 꺼내어 박편으

로 잘라 햇볕에 말린다. 부자 100kg, 감초 3kg 조각자 2.5kg가 들어간다.《中國炮製經驗集成》

- (8) 甘草, 金銀花, 黑豆製 : 먼저 감초, 금은화와 흑두에 물을 가하여 끓이고 다시 이미 물에 담근 부자를 넣고 계속 2시간 끓인 다음 꺼내어 음건한다. 다른 나무상자에 황금분말을 상자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부자를 한층 깔고 그 위에 황금분말을 두는 형식으로 계속 반복하여 상자를 가득 채운다. 다시 마대를 이용해서 꼭꼭 뚜껑을 묶고(황금분말은 수분을 흡수한다) 약 10시간을 두고 꺼내고 다시 위의 방법을 반복하여 부자가 모두 건조하게 한다. 황금분말은 씻어내고 물을 끌고루 분무한 후에 2시간 쥘 다음 0.7mm의 두께로 자르고 햇볕에 말린다. 부자 100kg, 감초 2.5kg, 금은화 2.5kg, 흑두 2.5kg가 들어간다.《中國炮製經驗集成》
- (9) 生薑, 糖恢製 : 먼저 부자를 평지상의 종이가 깔린 돌자리에 펼쳐 놓고 부자를 잘 정리하여 생강편을 부자위에 덮고 종이 2장을 평평히 덮고 50mm 두께의 쌀겨를 종이위에 깔고, 이 위에 풀을 덮고 전체적으로 불이 붙을 때 쌀겨를 가해 약 3-4일 태우는데(불의 세기는 너무 강하면 종이가 타 약을 태울 수 있으므로 적당하게 한다) 쌀겨가 다 타고 난 후 부자를 꺼내어 약 16-18시간 쥘 햇볕에 말리고 다시 끓는 물에 약 2시간 담그고 1-2일동안 물을 끌고루 분무하여 부드럽게 하고 절편하여 햇볕에 말린다. 부자 100kg, 생강편 5-6kg, 쌀겨 100kg가 들어간다.《中國炮製經驗集成》

(10) 膽汁製 : 먼저 부편을 술에 넣고 열을 가하고 뻘으면서 담즙을 뿌려 전체가 골고루 잘 스며들 때까지 뻘고 물이 없어지고 황갈색이 될 때 꺼내고, 건조하면 담자부편이 된다. 부자100kg, 끓인 물을 태운 물 5kg(생수 사용은 금한다)가 들어간다.《雲南省中藥咀片炮製規範》

(11) 炒製 : 부자를 물에 담근 것을 취하여 황색과 군데군데 새까만 점이 있을 때까지 뻘는다.《中國炮製經驗集成》

(12) 麩製 : 부자편을 취하여 밀기울을 이용해 적당히 딱딱할 때까지 뻘고 절편하여 햇볕에 말린다.《中國炮製經驗集成》

五. 포제관련 술어 및 내용

1. 경포부자(京炮附子)와 당포부자(唐炮附子)

부자를 경포부자와 당포부자로 구별하여 부른 것은 상인들간에 유통되어 전해진 것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법제한 부자를 구별하는 의미가 있다. 법제 방법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서울 지방에 부자법제를 잘 하는 곳이 있어 이를 경포부자라 하고, 중국에서 법제해서 들어온 부자를 당포부자라 구별하여 부른 대서 유래되었다.

2. 이부자(泥附子)⁵

다년생 초목인 바꽃(烏頭) *Aconitum carmichaeli* Debx의 母根과 鬚根을 제거하고 子根을 취하여 깨끗이 씻은 것을 말한다. 밭에서 막 캐낸 생부자는 아주 잘 상하므로, 보통 염처리를 해서 부자의 표면에 결정염의 입자가 생기며 딱딱하게 굳어

진 염부자 상태로 보관 이송한다.

參 考 文 獻

3. 담파수(膽巴水)와 간수(bittern)

담파수는 사천성 지역의 지하암염수를 말하며, 흔히 간수라고도 합니다. 소금물에서 염화나트륨(식염)을 결정화(結晶化)시킨 뒤에 남는 모액(母液)으로, 식염에서 녹아 내린 액상의 짜고 쓴 간국으로 주성분은 염화마그네슘($MgCl_2 \cdot 6H_2O$, 사리염(瀉利鹽)(epsomite))로 두부를 만들 때 응고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자의 포제법에서는 방부제의 작용을 한다.

4. 조색제(황당과 채유)

담파수에 담구어 두었다가 함께 끓여 부자의 독성을 제거한 다음, 다시 맑은 물을 여러 차례 갈아주어 담파수를 제거하고, 黃糖(갈색설탕, 紅糖(대만에서 부르는 말))과 채유(유채꽃기름)로 부자의 열성과 건조한 성질을 완화하며, 자음하는 효과를 보충해주어 건조시킬 때때 갈라지지 않게 하며 또한 조색을 한다. 중국 전통의 부자 포제법으로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법제이며 사천성에서 주로 흑순편으로 가공할 때 많이 사용한다.

六. 討 論

전통포제법의 계승과 발전을 통하여 지역마다 산지마다 각기 특색이 녹아있는 포제법을 계승하고 발전하여 소중한 유산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 馬繼興. 神農本草經輯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年 p.33-334
2. 張振東,等. 國外中藥炮製研討. 中藥材.1993年:16(6):28
3. 郭建民,等. 現代中藥炮製手冊.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年 p.264-367
4. 王孝濤 編著. 中藥採製與炮製技術. 合記圖書出版社. 2003年 p.171-173
5. 葉定江,等. 中藥炮製學, 人民衛生出版社, 1999年 p.322-323
6. 胡索梅. 等.附子炮製新法. 中成藥研究.1981年:(2):21